

로장 빛났다... 연변팀 료녕철인에 1 대 2 원정패

—강팀과의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며 가능성 확인



로장 김태연의 동점골이 빛났으나 강팀은 강팀이었다.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4월 6일 오후 3시에 심양올림픽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3라운드 경기에서 올 시즌 목표를 슈퍼리그 승격으로 내건 료녕철인팀과 맞붙어 턱밑까지 추격하며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1 대 2로 아쉽게 패했다.

홈팀인 료녕철인팀이 4-2-3-1 전형으로 경기를 시작한 가운데 연변팀은 4-4-2 전형을 꺼내들었다. 음바와 포부스가 투톱을 담당하고 리강, 천창걸, 도망구스, 김태연이 미드필더로 나섰다. 수비라인은 호재겸, 서계조, 왕붕, 허문광으로 구성했다. 키퍼 장갑은 동가람이 착용했다.

지난 2라운드에서 후반에 투입되어 로장의 품격을 뽐내며 페널티킥 결정골로 팀의 올 시즌 첫 승점 쌓기에 기여했던 박세호는 이날 역시 후보석에서 시작했다.

전반 초반부터 료녕철인팀은 홈장 우세를 등에 업고 매섭게 몰아쳤다. 경기가 시작되어 3분도 안되는 사이에 료녕철인팀은 연변팀의 골문을 노리는 슈팅을 두번이나 때렸고 다행히 골은 빛나거나 문대를 맞고 튕겨나

가며 안도했다. 연변팀도 차츰 경기에 몰입하며 수비를 다지는 한편 역습 기회를 엿봤다. 랑 측면을 활용해 문전으로 침투하려는 연변팀의 시도가 연출된 가운데 두 팀의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되었다.

14분경, 중원에서부터 시작된 연변팀의 패스 런제가 최전방의 포부스를 거쳐 음바에게로 넘어갔고 음바가 때린 첫 슈팅이 연변팀의 첫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코너킥을 기점으로 연변팀은 상대팀 문전에서 슈트 기회를 노렸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나오지 못했다.

이에 맞서 료녕철인팀도 쾌속 반격을 가했고 동가람이 선방을 펼치며 골문을 지켜내나 싶던 중 22분경에 료녕철인팀이 한차례 코너킥 기회로 결국 선취골까지 가져가며 앞서갔다.

실점한 연변팀도 균형을 되돌리려 공격 전개를 꾀했지만 중원 장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료녕철인팀의 기세가 날카로운 가운데 장면에서는 밀리는 듯 보였지만 연변팀은 수비를 두텁게 다지며 부단히 반격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33분경, 드디어 홈팀

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동점골이 나왔다. 연변팀은 경기 두번째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포부스가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침투해있던 서계조가 살짝 튀어오르며 헤딩으로 공의 위치를 돌렸다. 공은 위치 선정이 탁월했던 김태연의 발밑으로 떨어졌고 김태연은 좁은 공간에서 몸을 돌리며 슈팅을 때렸다. 로장의 품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자 료녕철인의 골망이 시원하게 흔들리는 찰나였다.

1 대 1,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연변팀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동점골과 함께 사기충천한 연변팀은 연속적으로 상대팀 문전을 휘저으며 료녕철인의 수비선을 괴롭혔다. 그런가하면 김태연의 슈팅이 또 한번 나오며 멀티골에 대한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홈팀이 혼란에 빠진 사이 경기 주도권을 잡은 연변팀은 44분경에는 포부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무한 질주하며 먼거리 슈트로 연결해봤지만 상대팀 키퍼에 의해 쳐내졌다. 전반전 결승을 앞두고 연변팀은 경기 세번째 코너킥을 만들어내며 추가 시간 2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연변팀은 전력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을 터뜨린 김태연이 문전으로 쇄도하던 음바에게 똑같은 패스를 내줬고 키퍼와의 일대일 기회에 시도한 음바의 슈팅이 키퍼에게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초반에 료녕철인의 공 점유율이 좀더 높았으나 연변팀의 수비를 뚫지 못하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62분경, 연변팀이 먼저 교체 카드를 꺼냈다. 로용개저가 리강을 교체하여 출전했다.

홈에서 조금만 졌음은 료녕철인이었고 연변팀은 여유를 가지고 공격의 활로를 모색했다. 음벤자가 문전에서 때린 헤딩골을 동가람이 선방으로 쳐냈다. 경기는 여전히 치열한 1 대 1 접전이였다. 67분경에 나온 안의은의 슈팅도 문대에 맞혀 튕겨나왔다. 연변팀 문전 앞에서 혼전이 벌어졌지만 연변팀은 골문을 굳건히 지켜냈다.

69분경 조금만 료녕철인팀이 동시에 3장의 교체 카드를 쓰더니 71분경에 얻은 프리킥 기회로 프리킥 골까지 성사시킬 줄이야...

추가골을 허용하며 다시 균형이 깨진 연변팀은 박세호를 투입하고 천창걸을 교체했다. 부상으로 자리를 잠간 비웠던 허문광의 자리는 양이해가 출전해 대신했다.

반면 료녕철인의 기세가 다시 살아났다.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연변팀의 문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세에 몰린 연변팀은 78분경 재차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음바와 포부스를 내리고 황진비와 리석민을 투입했다.

86분경 연변팀도 먼거리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빛나며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경기 종반으로 흐름수록 우세를 지켜내려는 료녕철인의 의도가 선명했고 연변팀은 절대적인 찬스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90분에 접어들며 후반 추가 시간 4분까지 연속적인 코너킥과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동가람의 선방과 수비진의 완강한 저항 끝에 더 이상의 추가골은 허락하지 않았다.

1 대 2로 졌지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연변팀은 시즌 초반 4연속 원정경기의 마지막 상대인 석가장 공부와 4월 13일에 제 4라운드 대결을 마치고 4월 22일에 드디어 홈으로 돌아온다. / 김가혜기자 / 사진 신화사



연변의 2개 학교 '국가필드하키후비인재기지'로

3월 25일, 국가체육총국 핸드볼·필드하키(曲棍球)·야구·소프트볼중심은 <내몽골 모린다와 다우루족자치기중등직업기술학교 등 123개 단위를 '필드하키후비인재기지(2025년-2028년)'로 인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연길시제 9중학교가 '중국필드하키전통학교'로, 연길시동산소학교가 '중국필드하키보급학교'로 인정되었다.

2011년부터 연변에서는 필드하키 종목의 발전을 견지해왔다.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은 전 주 경기체육의 주기 분포와 결부하여 긴밀한 체육-교육 융합을 두드러지게 했으며 깊이 조사연구한 후 연길시제 9중학교에 연변의 첫 여자 필드하키팀을 내오기로 하고 전문 지도를 학교에 파견하여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마다 전문경비를 보장하고 해당 학교에 필드하키 전문훈련장소를 건설함으로써 필드하키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장기적으로 추동했다. 2024년, 주체육국은 연길시동산소학교에 필드하키 운동을 배치하여 필드하키 대상의 소학교-초중 전반적 양성, 진학 모식을 형성했다. 전폭적인 육성과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 연길시제 9중학교는 선취하여 국가체육총국의 '국가후비인재전통학교', '국가고수준체육후비인재양성기지(2021-2024)'와 길림성체육국 '길림성후비인재중점반'에 입선되었다.

다년간 연변은 필드하키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는데 길림성체육학교에 우수한 운동선수 30여명을, 길림성 전문팀에 10여명을 수송했으며 국가소년팀에 4명, 국가청년팀에 1명, 국가대표팀에 1명 선발되기도 했다. /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

중국여자축구 우즈베키스탄에 5 대 0 완승



5일 열린 2025 영천국제여자축구선수권대회 개막전에서 개최국인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에 5 대 0 대승을 거두었다.

중국팀은 현재 세계 순위가 17위이고 우즈베키스탄팀은 50위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상대와의 대결에서 중국팀은 경기 시작부터 집중 공격을 펼쳤으나 여러차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 44분경에야 요위아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장형이 중앙에서 쇄도하며 득점으로 연결했고 드디어 경기의 균형을 꺾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2003년생인 나어린 공격수 소자홀이 금지구역 안에서의 혼전을 틈타 재차 득점하며 2골 차 우세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이 시작되어 69분에 득점포가 다시 한번 가동되었다. 리몽문이 페널티지역 밖에서 장거리 슈트를 날리며 중국의 3 대 0 리드를 이끌었다. 이어 87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선수가 문전에서 고의적 핸드볼을 범했고 주심은 페널티킥 선언과 함께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류징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4 대 0으로 격차를 벌린 중국팀, 경기가 이대로 끝나나 싶던 때 3분후 교체 멤버로 들어온 왕연문이 한번 더 추가 득점을 만들며 중국팀은 최종 5 대 0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완승했다.

중국여자축구대표팀 밀리시치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많은 기회를 만들어 경기를 주도했지만 전반전에 상대팀 선수들이 여러차례 넘어지면 경기 흐름이 끊겼고 이로 인해 골이 늦게 나왔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잘했고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다른 경기에서 타이팀이 잠비아팀을 3 대 2로 전승했다. 중국팀은 8일 타이팀과 영천국제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다툰다. / 신화사

[오늘의 영상]

'로장은 살아있다'... 90분 풀타임 활약 김태연



지난 제 2라운드 경기에서 박세호가 로장의 품격을 뽐냈다면 이번 제 3라운드에서는 김태연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로장은 살아있다'를 경기력으로 증명했다.

6일 오후 3시에 있는 갑급리그 제 3라운드 료녕철인과의 경기에서 김태연은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김태연은 공격적인 모습은 물론 결정적인 수비도 보여주면서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특히 팀이 수세에 처했던 상황에서 터뜨려준 동점골로 김태연의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이 돋보였을뿐더러 좁은 공간에서 침착하게 몸을 돌려 때린 슈트로 로장의 품격을 한껏 과시했다.

한편 이날 연변팀은 절대적인 강팀과 붙어 쉽게 밀리지 않는 한판 승부를 펼쳤으므로 비록 졌지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로 평가받았다.

/ 김가혜기자 / 영상 연변라디오 TV넷

[경기후]

공수 맹활약 김태연 "원정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해 아쉽다"



4월 6일 오후 3시에 심양올림픽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료녕철인팀에 1 대 2로 원정패했다. 결과는 졌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다.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동점골까지 터뜨린 로장 김태연이 취재를 받았다.

경기에서 멋진 득점이 있었는데 이날 팀의 전반적인 표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태연은 "비록 경기는 졌지만 감독님이 평소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축구 전법을 경기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원정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후 기술통계표를 살펴보면 연변팀은 강팀에 맞서 슈팅을 14회 창출해 홈팀보다 1회 많았고 유효 슈팅 역시 5 대 5로 과정에서 밀리지 않았다.

/ 김가혜기자